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문화 교육에 대한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郭 同 根

2019年 8月



문화 교육에 대한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 연구

指導教授 金 鍾 勳

郭 同 根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 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9年 6月

郭同根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9年 6月



<국문초록>

문화 교육에 대한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 연구

郭 同 根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鍾 勳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영어 교사와 중·고등학교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그 두 집단 간 문화 교육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검토한 후, 효과적인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영미 문화 교육에 대한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 둘째, 영미 문화 교육에 대한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와 학습자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셋째, 효과적인 중·고등학교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한 개선점은 무엇인가?

연구 수행을 위하여 제주도에 근무 중인 영어 교사 101명과 중·고등학생 27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얻었다.

연구 결과, 문화와 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 교육 자료와 매체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 수업에서 실제 활용되는 매체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가 존재했다. 문화 교육 내용의 초점에 대해서는 특히 교사 집단에서 'little c'에 해당하는 문화 내용을 소재로 하여 교육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영어 교과서에 대해서 교사

들은 실제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참고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생들은 교사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교과서의 내용과 양에 대한 만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료와 매체 개발, 양질의 교사 연수를 통한 교사 전문성 신장, 교사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영미 문화 교육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2 연구 문제	3
1.3 구성	3

II. 이론적 배경

2.1 문화의 정의	4
2.2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	6
2.3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화 교육 방향	7
2.4 문화 교육의 의미와 지도 방법	9
2.4.1 문화 교육의 의미	9
2.4.2 문화 지도 방법	11
2.5 선행연구 요약	15

III. 연구 방법

3.1 참여자	19
3.2 연구 도구	21
3.3 자료 수집	22
3.3 자료 분석 방법	23

IV. 연구결과 및 논의

4.1 영미 문화 교육에 대한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	24
4.1.1 교사 인식 분석.....	24
4.1.2 학습자 인식 분석.....	36
4.2 영미 문화 교육에 대한 영어 교사와 학습자 인식 비교.....	46
4.3 효과적인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한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견해.....	55
4.3.1 교사의 견해.....	55
4.3.2 학습자의 견해.....	58
4.4 효과적인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한 논의.....	60

V. 결론

5.1 요약.....	63
5.2 교육적 시사점.....	64
5.3 연구의 한계점.....	66
5.4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66

참고문헌.....	67
-----------	----

ABSTRACT.....	70
---------------	----

부록.....	72
---------	----

표 목 차

<표 1> Lado의 문화 지도 단계.....	11
<표 2> 교사의 배경 정보.....	20
<표 3> 학생의 배경 정보.....	21
<표 4> 문화와 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25
<표 5> 문화 지도 계획에 대한 교사 인식.....	27
<표 6> 문화 지도 방법 및 자료에 대한 교사 인식.....	28
<표 7> 문화 지도 초점에 대한 교사 인식.....	30
<표 8> 교과서, 교사용 지침서 및 교육과정의 문화 내용에 대한 교사 인식.....	31
<표 9> 문화 지도 여건에 대한 교사 인식.....	33
<표 10> 기타 문화 교육 관련 교사 인식.....	35
<표 11> 문화와 문화 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	36
<표 12> 문화 학습 방법 및 자료에 대한 학습자 인식.....	39
<표 13> 문화 학습 초점에 대한 학습자 인식.....	42
<표 14> 영어 교과서 문화 내용에 대한 학습자 인식.....	43
<표 15> 문화 교육 시간에 대한 학습자 인식.....	45
<표 16> 문화 이해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46
<표 17> 문화 간 우열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47
<표 18> 문화 교육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47
<표 19> 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48
<표 20> 문화 인식 및 가치관 교육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48
<표 21> 교사 설명 활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49
<표 22> 교사 경험 활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49
<표 23> 시청각 자료 활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50
<표 24> 인터넷 활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50
<표 25> 노래, 게임 및 퀴즈 등의 활동 활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51
<표 26> 문학 자료 활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51

<표 27> 그룹과제 및 발표 활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52
<표 28> 문화 교육 초점(Big C)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52
<표 29> 문화 교육 초점(little c)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53
<표 30> 교과서 문화 내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53
<표 31> 영어 교과서 소재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54
<표 32> 문화 교육 시간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54
<표 33> 학생 흥미도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55
<표 34> 영어 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육 자료 및 매체.....	61

부 록 목 차

<부록 1> 교사용 설문지.....	72
<부록 2> 학생용 설문지.....	81
<부록 3> 교사 인터뷰 질문.....	89
<부록 4> 학생 인터뷰 질문.....	89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영어는 이미 세계어(world language)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중요한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단순히 철자나 음운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외국어 교육의 목표 중의 하나는 외국인의 사고방식, 생활양식 등을 포함하는 외국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데 있다. 즉,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에 대한 심화되고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 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차이를 바르게 인식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적응력과 자질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EFL 환경에서는 직접 영미 문화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의 쓰임을 이해할 수는 있을지라도 영미 문화가 포함하고 있는 내면적 의미까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 더불어 현재 영어는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모국어로서 뿐만 아니라 제 2언어나 외국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어 수업에서는 영어 원어민들의 문화와 더불어 비영어권의 다양한 문화를 폭넓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문화 소재를 접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실제 영어 화자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더 흥미롭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5 개정교육과정(영어과)에서도 영어 교육의 목표를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과 더불어 영어권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두고 있다(교육부, 2015). 즉,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화는 흔히 강조되는 언어 능력만큼이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며, 언어 능력 못지않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문화능력(cultural competence)을 향상시키는 것이 영어교육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지도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은 외국어 학습은 곧 문화 학습이라고 말할 정도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궁극적인 이유가 영어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이는 분명히 순수한 언어적 능력 이외에 문화 간 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문화 학습을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어를 사용하여 외국인과의 대화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영어에 대한 언어적인 지식 이외에 영어권 문화의 역사, 문학, 예술 등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제, 어떻게 악수를 하며, 대화 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대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끝내는지에 관한 문화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영어 교사들의 효과적인 문화 지도방법과 영미 문화 내용에 대한 비교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 교육에 대한 과거의 연구는 대부분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중요성, 영어 교과서의 문화 내용 분석, 효과적인 문화 교육 방안 및 수업 모형 제시에 대한 연구에 치중해왔으며, 문화 교육에 대한 영어 교사와 영어 학습자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의 일치와 불일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문화 교육에 대한 두 집단의 기대나 요구를 탐색하는 것과 더불어 두 집단에서 원하는 문화 교수법 및 문화 지도 활동, 교수 학습 자료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문화 교육 방안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화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교사 집단과 학습자 집단 간의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비교·검토하고 효과적인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영어 교사와 학습자가 문화 교육에 대해 갖는 전반적인 인식과 그 인식에서의 일치와 불일치 현상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문화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영미 문화 교육에 대한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영미 문화 교육에 대한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와 학습자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셋째, 효과적인 중·고등학교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한 개선점은 무엇인가?

1.3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제 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언어와 문화, 문화 교육, 문화 교수법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문화 지도 내용을 살펴본 후 문화 지도 관련 선행 연구를 요약한다. 제 3장은 연구 방법에 대한 기술로 연구 참여자와 자료 수집 방법 및 자료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교사 및 학습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습자의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함으로써 연구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된다. 제 5장 결론에서는 앞서 논한 바를 요약하고 효과적인 문화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후 향후 문화 교육 관련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학자들이 언급하는 문화의 개념 및 언어와 문화의 관계, 문화 교육의 중요성, 문화 지도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문화 지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문화 지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려고 한다.

2.1 문화의 정의

문화는 그 자체의 특성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보는 관점에 따라 접근하는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개인의 태도, 사고 및 행동양식, 예술, 문화, 지리, 역사, 언어, 관습 등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문화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문화의 개념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문화(culture)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한 영국의 인류학자 Tylor(1973: 1)는 문화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습득한 지식, 신념, 예술, 법, 도덕, 관습뿐만 아니라, 여타의 능력이나 관행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complex whole)라고 정의하였다. 즉, 문화는 인간의 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포함한 집합체이자 한 민족의 생활양식 또는 삶의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이다(Lado, 1964b: 110)

이와 유사하게 Rivers(1981)도 문화란 공동체 안에서 공유된 생활의 모든 양상을 뜻한다고 하면서, 사회집단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무언가를 행하는 방법,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 사물을 보는 방법, 가치를 두는 것, 경멸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은 것, 자신에게 기대되거나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을 배운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문화는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모든 생활양식으로서 구성원에게 후천적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라 하였고, 특정 사회집단에서의 성장 과정을 통해 그 사회에서 용인되는 행동양식을 배워가며 성장하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양식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The culture of a people is certainly the result of training, but training in all aspects of shared life in a community. The child growing up in a social group learns ways of doing things, ways of expressing themselves, ways of looking at things, what things they should value and what things they should despise or avoid, what is expected of them and what they may expect of others, these attitudes, reactions, and unspoken assumptions become part of their way of life without their being conscious of them. (Rivers, 1981: 263)

문화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Brooks(1964: 85)는 문화의 개념을 ‘Big C’문화와 ‘little c’ 문화로 구분한다. 즉, 그는 문화를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문화와 인간 생활의 최상의 것만을 뽑아놓은 문화로 분류하여 정의했다. 이를테면 인간 생활의 최상의 것을 모아놓은 문화가 ‘Big C’문화이며 이것은 문학, 고전, 음악, 무용, 건축, 예술작품 등 어떤 문화에서 가장 훌륭하고 대표적인 산물을 뽑은 것이다. 반면에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문화는 ‘little c’라고 하며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동과 언어적 행동, 태도, 신념, 가치체계 등이 포함된다. 특히 ‘little c’ 문화 습득은 언어의 기능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학습자의 사회 언어적 능력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접근법(communicative approaches)이 등장하면서부터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어떻게 적절하게 전달하고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목표언어 원어민들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언어적 행동과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 언어적 행동은 목표언어 사회의 태도나 신념, 도덕, 가치체계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little c’ 문화의 습득이 외국어 습득의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더 나아가 Brooks(1964)는 문화에 대한 정의를 더욱 세분화하여 생물학적 성장으로서의 문화, 개인적 순화로서의 문화, 문학과 예술로서의 문화, 생활 유형으로서의 문화, 생활방식의 총체로서의 문화,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는 특히 이 다섯 가지 문화 유형에서 외국어 교육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네 번째의 생활 유형으로서의 문화라고 보았다. 생활 유형이란 모든 생활에서 취해야 하는 태도와 행위 규칙으로 개인이

사회에서 취해야 하는 태도와 행동양식을 말하며, 이에 따라 인간은 유아기부터 자신이 속한 사회의 관습을 익히게 된다는 것이다. Brooks(1964)는 학교에서 다섯 가지의 문화를 모두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외국어 교육 초기 단계에서 생활 유형을 가르치고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문학과 예술작품과 생활방식의 총체를 도입하는 문화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2.2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

언어는 인간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와 결합할 수 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경험을 하고 언어를 통하여 문화를 창출한다. 즉, 언어는 문화의 소산이며 그 자체가 문화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언어와 문화를 학습의 측면에서 연구한 것은 언어학자 Lado(1964a)라 할 수 있다. Lado(1964a: 23-31)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교육과 관련지어 언어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목표언어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Lado(1964a)의 입장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외국어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며 문화 이해와 외국어 학습이 함께 맞물릴 때, 외국어 학습 효과와 목표 문화 습득 욕구가 극대화될 수 있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견해로 Sapir와 Whorf(1958)의 언어 상대성 가설(Language Relativity Hypothesis)을 빼놓을 수 없다. 그 가설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언어는 화자의 세계관의 영향을 주고 문화 환경은 세계관을 형성한다. 둘째, 언어는 화자의 세계관을 지배하기까지 함으로써 사회를 좌우하는 일이 있다. 셋째, 사상은 언어에 의해서 실제로 속박된다. 넷째, 환경에 대한 관점은 언어에 의하여 조건 지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 사회의 표현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특정 언어의 지배를 받으면 언어 습관에 따라 보고, 듣고, 경험한다는 것이다. 즉, 언어와 사고가 동시에 움직이며 언어는 문화와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tern(1992: 240)도 언어와 문화의 관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첫째,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며 문화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언어도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 둘째, 언어는 문화를 전달하므로 언어교사는 문화를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언어는 그 자체가 문화적 자세 및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무시되어선 안 된다. 또한 언어와 문화는 동시에 학습되어야 하고 문화는 언어 사용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 같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시각으로, 단순한 어휘의 의미 사용만으로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속한 문화를 반영한 상징적인 체계이며 사회적 약속의 결과물이므로 언어와 문화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언어를 통해 그 사회의 문화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사회가 언어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그 사회의 문화를 아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므로 외국어 교사는 목표언어의 문화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하며 정확한 의미와 표현을 이해하고 학습시킬 수 있어야 한다.

2.3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화 교육 방향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신장과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우리 문화를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것이 영어 교과목의 목표란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도 명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 의거, 2018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2015: 3-4)에 따르면,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어는 서로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대 및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더불어 공동체 역량을 강조하면서 국

제사회 문화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영어 교과목의 목표로 삼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 대인관계 능력 함양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언급되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은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며, 영어 이해 능력과 영어 표현 능력이 포함된다. 자기관리 역량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며 영어에 대한 흥미나 학습동기, 자신감, 학습 전략, 자기 관리 및 평가 등을 포함한다.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역량이며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공동체 역량은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며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배려와 관용, 대인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포함한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두 가지의 변화를 통해 문화 교육 내용을 확장하였다. 첫째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공동체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지정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화 교육 목표가 타문화 사람들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양식, 관습 등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공동체 역량’은 학습자가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인식함과 더불어 타문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문화 정체성, 문화적 가치관 확립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속 문화 교육 목표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화 지도와 관련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영어권 문화’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의 하나로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주변적으로만 다루어졌던 문화 교육을 하나의 독립 과목으로 등장시키고 ‘영어’나 일반 선택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 세계 시민 의식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화 이해와 관련하여 학교 급별로 세부 목표를 두고 있는바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학습을 통해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외국의 문화와 정보를 이해하여 우리 문화

를 영어로 간단히 소개하는데 문화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문화와 외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각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두고 있다. (교육부, 2015)

2.4 문화 교육의 의미와 지도 방법

2.4.1 문화 교육의 의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고 그 문화는 언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단순한 언어적 능력과 더불어 목표문화 교육을 통하여 목표언어의 고유한 문화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화 비교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습자 자신의 문화와 목표 문화를 연관시켜보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만약 학습자가 문화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외국어나 외국 문화를 자신의 문화 방식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와 외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의미만 이해할 수 있다. 즉, 문화 교육이 없으면 목표언어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를 모국어의 문화와 연관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Seelye(1976: 170-178)는 문화 교육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다음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습자는 그 사회가 기본적인 신체적·정신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용인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선형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이 속한 사회집단의 문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 성, 연령, 사회신분,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나이, 성별, 사회계층, 거주지 등 여러 사회적 변이에 따라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는 일상적인 목표언어의 말과 문맥 속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확실히 하는 과정에서 해당 역할의 관습적인 행위를 이해하고 지칭할 수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목표문화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이해하는 것으로 언어적 표현과 함께 그들만의 행동 양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넷째, 학습자는 가장 일상적인 언어 내의 말과 구문과 연관된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미지를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단어 또는 표현들은 문화적인 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연결된 문화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섯째, 학습자가 목표문화를 지나치게 정형화하거나 과잉 일반화하여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다양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여섯째, 도서관, 대중매체,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목표언어에 관한 정보를 조직하고 찾아내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학습자가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곱째, 목표언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입과 목표언어에 관한 지적 호기심을 증명하여야 한다. 즉 목표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 문화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Seelye(1976)의 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은 주로 모든 교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문화 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반면 Rivers(1981: 315)는 외국어 교육의 목표에서 목표 언어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첫째, 외국어 학습을 통해서 지적 능력을 발전시키며, 둘째, 외국 문학이나 철학을 학습함으로써 교양을 쌓고 셋째, 외국어 학습을 통해서 언어의 기능을 이해함에 따라 모국어 기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넷째, 외국어 독해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최근의 저술이나 연구 결과 및 기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다섯째, 학습자가 또 다른 언어적, 신체 동작적, 문화적 틀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여섯째는 목표어를 상용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두 및 서신을 통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것이다. 그녀는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들은 목표 문화와 자국 문화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 문화에 대한 적대심이나 편견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목표언어의 문화 내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모국어의 문화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2.4.2 문화 지도 방법

영미 문화 교육의 목표는 적절한 문화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가치관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아울러 문화 교육을 통해 외국 문화를 이해하고 폭넓은 세계관을 길러 자기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따라서 문화 교육을 영어 수업에서 어떻게 수행할 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것은 교사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영어 교사는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실제 자료(authentic materials)를 영어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문화 이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은 문화 교육을 위해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에 해당한다.

문화 지도와 관련하여 Lado(1964a: 150-153)는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방법의 특징을 다음 <표 1>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표 1> Lado의 단계별 문화 지도 특징

1단계	그림, 영화, 음악 등을 이용하여 학습자를 상이한 문화로 유도하는 단계
2단계	외국어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언어구조의 지도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재료가 무미건조하지 않게 문화 내용을 짜 넣는 단계
3단계	대화나 독해 교재에서 맥락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여 문화내용을 설명하는 단계
4단계	문화적 화제를 선택하여 문화적 정보를 통해 외국어를 교수하는 단계
5단계	목표언어가 갖는 문화를 실제로 경험하는 단계

문화 지도 방법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제시는 Hammerly(1986)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는 문화 지도 방법을 30가지로 열거하면서 영어 교실은 문화 환경으로 채워주고 1-2주일 간격으로 문화 내용에서 변화를 주어야한다고 보았다. Hammerly(1986)가 제안한 문화 지도 방법 중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실제 수업에서 적용 및 활용 가능한 지도 방법들을 차례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설명(culture aside) 방법으로 문화 지도 내용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언어 학습 도중 문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학습자의 관심을 문화 내용으로 돌려 교사가 수시로 간단히 설명하는 방법이다. 지도 내용은 특히 자국 문화와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왜 그러한 차이점이 문화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 교사가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고 평소에 알고 있는 문화적 지식을 통해 즉흥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업 전반에 걸쳐 부수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않으며 교사 설명이 주가 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문화 내용에 대해 수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문화에 대한 교사의 편향된 가치가 그대로 전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둘째, 문화 동화(culture assimilator) 방법은 문화 간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처음에는 외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우선 학습자들로 하여금 오해나 혼동 혹은 외국 문화에 충격을 느낄 수 있는 짧은 글들을 묵독(silent reading)하게 한 후 질문을 던지면, 학습자들은 3-4개의 가능한 보기 중에서 정답을 고르게 하고 각 질문에 따라 선택의 옳고 그름을 알려주어 문화를 지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문화 교육 외에 읽기 교육도 포함되므로 독해력 향상에도 효과적이며, 문화적 통찰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사의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문화 묘사(culture capsule) 방법은 두 나라의 문화 중에서 현저한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고 비교한 후 그 차이를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슬라이드 등의 시각자료를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 방법이다. 두 문화의 최소한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황을 제시하여 간단한 질문 후에 학습자 간 토론을 하게 된다. 문화 동화 방법이 묵독을 한 후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데 비해, 이 방법은 두 나라의 문화적 특성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자국문화와 외국문화가 어

떻게 다른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시들을 통해 자국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사가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학습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문화적 성격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된다. 사회제도, 학교제도, 식생활, 교통 표지판 등의 소개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넷째, 직감적 반응소/청취 후 행동 방법은 교실에서 학습자의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방법이다. 전신반응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을 문화학습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교사가 구두로 명령하면 학습자들이 즉각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명령을 한 다음 몸짓, 마임, 얼굴표정 등을 지으며 자신의 명령 내용을 보여준 후 학습자들이 교사의 반복적인 행동을 관찰하여 행동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섯째, 문화와 관련된 어휘를 브레인스토밍 하는 활동으로 다른 문화권에 대한 선협지식이 어느 정도이며 그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당 문화를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운동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학습자들이 ‘American Football’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적도록 한다. 이 과제를 통해 ‘American Football’에 대한 선협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고 수집된 단어 중 American Football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를 토대로 하여 다음 문화 학습 과제를 도출한다. (윤정미, 2007: 40)

다음으로, 단막극(Mini-Drama)은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 직접 참여하여 외국어 의사소통 학습에 있어서 단순한 문장 번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드라마나 교육용 비디오를 선정하여 전체를 보여주거나 특정 장면만 보여줄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게 실제 상황과 비슷한 대화를 보고 들으면서 언어 표현과 더불어 비언어적 행동 양식과 몸짓 등을 익힐 수 있다. 교과서의 문화 관련 대화문을 자료로 그 상황을 직접 연출하여 보다 능률적인 학습으로 유도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드라마, 비디오 자료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의 특성 상 문화생활의 한 측면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다른 내용은 학습자에게 왜곡된 문화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고, 또한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어휘 혹은 그러한 장면들을 수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역부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른 사회제도가 수록된 부분을 적

절히 선정하여 필요한 문화 요소가 들어가도록 재편집한 대본을 학습자에게 건네줄 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교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며 많은 수업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수업 시간 내에 진행되므로 시간 활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어서 역할극(Role-Play)은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학습자들이 문화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직접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Rivers(1981)는 역할극을 통해 문화 학습이 언어 학습 과정에 흡수되어 통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학습자들은 실제 생활과 비슷한 상황을 통해 언어와 더불어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학습자들이 직접 역할극을 만들고 연기를 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실제 상황에서 대화하는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 현장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 다른 문화 지도 방법인 문화 짝 맞추기란 학습자의 문화 항목 숙지를 위해 다른 문화권에서 그와 대응되는 것을 찾도록 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문화 A는 미국의 문화 B에 해당한다는 식의 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짝을 이루는 예시는 별로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언어 사이의 순수한 대응어가 별로 없듯이 문화 간에도 서로 대응이 되는 문화 항목이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끼워 맞추는 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 방법을 이용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문화 학습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지도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 신문, 잡지, 광고물 등의 문화적 내용을 담고 있는 문화 간행물을 읽고 참조하도록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문화 간행물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하면서 신빙성이 있고, 또한 가장 최근의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서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잡지 광고는 아직 사전에 나타나지 않은 유용한 실용 어휘의 제공에도 효과적이며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문화 환경 제공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동시성을 반영하면서 문화 차이를 반영하는 광고물들과 독해자료는 시사 흐름에 맞게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극대화하여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실수담을 소개함으로써 문화를 지도할 수 있다. 문화 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문화에 대한 무지가 유발한 실수 경험 등을 소개하고, 실수의 이유를 학습자 스스로가 찾아 말하도록 한다.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 가치관, 신념 등의

일부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수로 인한 재미있는 일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문화를 영어교실에서 지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영어 교사가 어떠한 문화 지도법을 택하여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영미 문화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과 욕구 및 관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2.5 선행연구 요약

제 2언어로서 영어 교육 분야나 외국어로서 영어 교육 분야에서 분야에서 문화 교육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그 동안 문화 지도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행해져 왔다. 첫째는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들(Brown, 2015; Lado a,b, 1964; Rivers, 1981; Seelye, 1993; Stern, 1992), 둘째는 영어 교과서의 문화 내용을 분석한 연구들(강영실, 2008; 김연미, 2011; 김지연, 2011; 도윤정, 2009; 방미선, 2013; 신찬이, 2013; 이은주, 2009), 셋째는 문화 지도의 효과적인 방안과 수업 모형을 제안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강영실, 2008; 김보배, 2013; 방미선, 2013; 임선형, 2007), 넷째는 문화 지도에 대한 교사나 학습자의 인식을 연구한 것들(김경희, 2014; 류지영, 2007; 안은미, 2005; 장은숙, 2013; 주소영, 2007)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교사와 학습자가 문화 교육을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교과서의 문화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효과적인 문화 지도 방안과 수업 모형을 제안하는 연구, 문화와 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 또는 학습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뒤를 이었다.

첫 번째 주제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Brown(2015: 156-162)은 문화란 삶의 방식이며 우리가 존재하고, 사고하고, 느끼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환경이라고 정의하면서, 외국어 학습에서 목표 언어와 문화적 관습, 가치, 신념과의 관계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고 문화는 언어의 일부로서 서로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분리시키면 어느 하나의 중요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외국어 습득은 곧 목표 언

어가 속한 나라의 문화 습득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외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하여 강영실(2008)은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내용과 효율적인 문화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효과적인 문화 지도방안 연구를 위해서 문화 교육의 일차적인 자료로 사용되는 교과서에 포함된 문화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의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연구에서는 7차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중 5종을 선택하여 문화 내용의 다양성과 문화 설명 파트를 점검하였는데, 그 결과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소재가 주로 일상생활에 관한 소재나 의사소통 기능 활용에 도움이 되는 'little c'에 해당하는 영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Lado(1964b)가 분류한 문화 중 보편문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문화가 대부분이어서 목표 언어를 반영하는 영미 문화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화 지도 방안을 교사설명중심의 지도 방법과 학생활동중심의 지도방법으로 구분하고 각 방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김연미(2011)는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독해 부분에 대한 문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7차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에서는 19개의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한정되어 있고 주제에 대한 글의 내용 또한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은주(2009)는 7차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총 25종에 문화 내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와 국가별 반영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과 영어 교과서에서 다루지는 문화 내용의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세 번째 주제에 관한 주요한 연구로 임선형(2007)을 들 수 있다. 그녀는 중학교 3학년 72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 지도 방안을 연구하였다. 약 3개월 동안 각 36명의 두 학급을 실험반과 비교반으로 나누어 매 수업마다 영국과 미국에 관련된 문화 내용을 교사가 소개하였고 주 1회는 학습자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목표 문화 내용을 선정하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문화 교육을 병행한 영어교육이 학습자의 흥미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았다. 설문지를 통하여 흥미도를 조사하고, 전국 영어듣기능력 평가와 교내 정규 고사를 통하여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흥미도는 실험반과 비교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듣기평가와 정규고사 성적을 비교한 결과 문화 교육을 병행한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에서도 긍정적인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문화 지도에 관한 네 번째 부류의 연구는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문화 지도에 대한 인식을 다룬 것이다. 김경희(2014)는 중학교 영어교사와 학습자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 교육 실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문화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347명의 학습자들과 63명의 영어 교사·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 간의 인식에서는 1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미 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 간의 인식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습자는 현재에 만족하지만 교사는 현재 문화 교육이 적정하지 않아 수정 및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문화 교수법과 활동에 대한 문항을 통해 문화 교육 실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교과서 내용을 위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두 집단이 다른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만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류지영(2007)도 중학교 영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 현황과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경희(2014)와는 달리 중학교 2학년 학생 125명과 교사 30명, 그리고 학부모 30명을 설문 대상으로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세 집단 모두 영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교사와 학습자, 학부모의 영어권 문화 지식은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자료의 부족이나 지식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로 학교와 가정에서 영어권 문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영어권 문화에 대한 세 집단 모두의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가정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지도방법이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교과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와 다문화 영어교육에 대한 고찰 등 영미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그렇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였고, 교과서 내용 분석 결

과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결합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문화 지도 관련 선행 연구들을 종합할 때, 현재까지 문화 지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지만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강조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김경희(2014), 류지영(2007) 등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문화와 문화 교육에 관한 교사와 학습자의 전반적인 인식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미 문화 교육에 대한 영어 교사 집단과 학습자 집단 간의 전반적인 인식 고찰을 토대로, 문화 교육에 대한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식에 나타난 일치와 불일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한다. 또한 영어 수업에서의 문화 교육이 실제로 어떠한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지와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영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바람직한 지도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장의 목적은 연구에 참여한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배경 정보를 제시하고 연구에 필요한 도구 및 자료 수집 절차와 자료 수집 방법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3.1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다.

교사들은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에서 현재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와 강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총 101명(중등교사: 35명, 고등교사: 66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교사의 배경 정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자 교사가 44명(43.6%), 여자 교사가 57명(56.4%)이며, 연령은 20대가 12명(11.9%), 30대 30명(29.7), 40대 30명(29.7), 50대 이상이 29명(28.7%)이었다. 또한 경력은 1~5년이 20명(19.8%), 6~10년 25명(24.8%), 11~15년 15명(14.8%), 16~20년 15명(14.8%), 21년 이상 26명(25.8%)이었다. 그리고 교사들의 해외 어학연수 및 거주 경험은 ‘있다’가 68명(67.8%)으로 ‘없다’인 33명(32.7%)보다 두 배 이상이었고, 대학에서 문화 지도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은 ‘있다’가 59명(58.4%), ‘없다’가 42명(41.6%)이었다. 또 문화 지도 연수 경험은 35명(34.7%)이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66명(65.3%)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교사의 배경 정보

범주	구분	사례 수(%)
성별	남자	44(43.6)
	여자	57(56.4)
연령	20대	12(11.9)
	30대	30(29.7)
	40대	30(29.7)
	50대 이상	29(28.7)
경력	1-5년	20(19.8)
	6-10년	25(24.8)
	11-15년	15(14.8)
	16-20년	15(14.8)
	21년 이상	26(25.8)
근무 학교	중학교	35(34.7)
	고등학교	66(65.3)
어학연수 및 해외거주 경험	유	68(67.3)
	무	33(32.7)
대학 문화 지도 과목 수강 여부	유	59(58.4)
	무	42(41.6)
문화 지도 연수 경험	유	35(34.7)
	무	66(65.3)

학습자들은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총 2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습자 집단의 배경 정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이 156명(55.9%), 여학생이 123명(44.1%)으로 나타났고, 학교급간은 중학생 130명(46.6%), 인문계 고등학생 149명(53.4%)이었다. 이 중 65명(23.3%)의 학생들은 영어권 국가로 해외여행을 경험한 적이 있고, 7명(2.5%)은 해외로 어학연수 및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학습자의 배경 정보

범주	구분	사례 수(%)	합계
성별	남자	156(55.9)	279 (100.0)
	여자	123(44.1)	
연령	중학생	130(46.6)	279 (100.0)
	고등학생	149(53.4)	
영어권 국가	유	65(23.3)	279 (100.0)
해외여행 경험	무	214(76.7)	
해외 연수 및 유학 경험	유	7(2.5)	279 (100.0)
	무	272(97.5)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와 인터뷰를 자료수집의 방법으로 삼았다. 먼저 교사용 설문지는 문화 및 문화 교육의 중요성 8문항, 문화 지도 계획 2문항, 문화 지도 방법 및 자료 7문항, 문화 지도 초점 2문항, 현행 교과서 및 교육과정의 문화 지도 소재 및 내용 5문항, 문화 지도 여건 5문항, 그리고 기타 문화 지도와 관련된 요소 2문항,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 1 참조). 학생용 설문지는 문화 및 문화 교육의 중요성 8문항, 문화학습 방법 및 자료 9문항, 문화학습 초점 2문항,

현행 교과서 및 교육 과정의 문화 지도 소재 및 내용 6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 2 참조).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도윤정(2009), 박용규(2011), 신찬이(2013), 조성경(2012) 장은숙(2013), 김경희(2014)의 설문지 문항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각 문항 별로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지는 김경희(2014)와는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경희(2014)는 영미 문화 교육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식, 즉 선호에 중점을 두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의 설문지는 학교 영어 수업에서의 영미 문화 교육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와 매체에 관한 설문을 했다는 점에서 같은 소재를 다루는 문항일지라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 지도 계획에 관한 문항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언급하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 교육 내용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 등에서 다른 점이 있다.

설문지 응답에 참여한 영어 교사들과 학습자들 중 무작위로 각각 8명씩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형식으로서 교사의 경우 문화 교육에 대한 실태와 개선점, 그리고 문화 지도 기법 및 문화 지도 관련 교사 연수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문화 교육을 위한 방안 등을 알아보았다(부록 3 참조). 학습자들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 교실에서 영미 문화 교육의 실제적인 문제점과 효과적인 문화 교육을 위해 교사들에게 희망하는 점 등을 알아보았다(부록 4 참조).

3.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직접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영어 교사와 학습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한 후 응답 요령 등의 부가적인 설명을 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대략 10~15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교사 101부, 학습자 292부였으며 완성된 질문지는 바로 회수하였다. 회수한 학습자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자료(하나의 번호로만 응답 혹은 한 페이지 이상 미응답) 13부를 제외한 279명(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149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3.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설문지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인 교사와 학습자의 일반적인 기초 조사를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문제 1번과 관련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 집단과 학습자 집단 설문을 각각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후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문제 2번과 관련한 교사 집단과 학습자 집단 간 인식의 일치나 불일치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인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5점 Likert 척도의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계산하였고 모든 문항은 빈도분석으로 결과를 얻었다. 8명의 영어 교사들과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는 그들이 언급한 문화 교육 관련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문제와 연관시켜 보았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효과적인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앞에서 설정한 3개의 연구 문제에 대한 답하기 위해 설문지와 인터뷰에 나타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한다.

4.1 영미 문화 교육에 대한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

4.1.1 교사 인식 분석

중·고등학교 교사가 문화와 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인식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문화와 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N=101)

단위 : 인원수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1.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0 (0.0)	0 (0.0)	5 (5.0)	44 (43.6)	52 (51.5)	4.47 (.593)
2. 세계 각국의 문화는 우열이 아닌 다양성을 가진 존재로서 모두 가치가 있다.	0 (0.0)	0 (0.0)	1 (1.0)	42 (41.6)	58 (57.4)	4.56 (.518)
3. 세계 각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0 (0.0)	0 (0.0)	2 (2.0)	50 (49.5)	49 (48.5)	4.47 (.540)
4. 올바른 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다.	0 (0.0)	0 (0.0)	2 (2.0)	50 (49.5)	49 (48.5)	4.47 (.540)
5. 국제화 시대에서는 영어교육 못지않게 올바른 문화 인식 및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	0 (0.0)	0 (0.0)	0 (0.0)	37 (36.6)	64 (63.4)	4.65 (.484)
6. 문화 교육은 학습자에게 영어를 쉽게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0 (0.0)	0 (0.0)	13 (12.9)	54 (53.5)	34 (33.7)	4.21 (.653)
7. 문화 교육은 의사소통 시 오해와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0 (0.0)	0 (0.0)	1 (1.0)	51 (50.5)	49 (48.5)	4.48 (.521)
8. 문화 교육은 목표문화와 우리 문화의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0 (0.0)	0 (0.0)	5 (5.0)	54 (53.5)	42 (41.6)	4.37 (.578)

1번 문항인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 43.6%, ‘매우 그렇다’ 51.5%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거의 모든 교사들이 세계 각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국가의 문화의 우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2번 문항 ‘세계 각국의 문화는 우열이 아닌 다양성을 가진 존재로서 모두 가치가 있다.’는 질문에서도 ‘그렇다’ 41.6%, ‘매우 그렇다’ 51.4%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선진국의 문화는 우월하고 후진국의 문화는 뒤떨어지는 문화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세계 각국의 문화는 모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3번 ‘세계 각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서는 ‘그렇다’ 49.5%, ‘매우 그렇다’ 48.5%로 약 98%의 교사가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의 모든 교사들이 세계 각국의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문화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5~8번 문항 중에서 ‘국제화 시대에서는 영어교육 못지않게 올바른 문화 인식 및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는 5번 문항에서는 ‘그렇다’ 36.6%, ‘매우 그렇다’ 63.4%를 보임으로써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이 문화 인식과 가치관을 교육하는 것도 국제화 시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번 문항인 ‘문화 교육은 학습자에게 영어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 관해 ‘그렇다’ 53.5%, ‘매우 그렇다’ 33.7%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문화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영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 교육은 의사소통 시 오해와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7번 문항에 대해서도 ‘그렇다’ 50.5%, ‘매우 그렇다’ 48.5%로 거의 모든 교사들이 문화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의 오해와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8번 ‘문화 교육은 목표 문화와 우리 문화의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53.5%, ‘매우 그렇다’ 41.6%의 응답률을 보였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문화 교육을 통해서 학습 대상 언어의 문화와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잘 알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교사 집단은 전반적으로 문화 교육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외국어 학습, 특히 의사소통 능력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화와 문화 교육에 가치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한 김경희(201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교사들의 문화 지도 계획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과 응답은 다음 <표 5>과 같다.

<표 5> 문화 지도 계획에 대한 교사 인식 (N=101)

	단위 : 인원수 (%)					평균 (SD)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영어 수업에서 가르칠 문화 내용들을 알고 있다.	0 (0.0)	3 (3.0)	34 (33.7)	50 (49.5)	14 (13.9)	3.74 (.730)
10. 수업 계획 단계에서 단원별로 문화 지도를 위한 차시내용을 계획한다.	5 (5.0)	44 (43.6)	40 (39.6)	8 (7.9)	4 (4.0)	2.62 (.859)

교사의 문화 지도 계획에 관한 9-10번 문항 중에서 ‘영어 수업에서 가르칠 문화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9번 문항에서는 ‘그렇지 않다’ 3.0%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렇다’ 49.5%, ‘매우 그렇다’ 13.9%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교사들이 영미 문화 교육을 할 때 가르칠 문화 내용들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0번 ‘수업 계획 단계에서 단원별로 문화 지도를 위한 차시내용을 계획한다.’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5.0%, ‘그렇지 않다’ 43.6%로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반면 ‘그렇다’ 7.9%, ‘매우 그렇다’ 4.0%로 교사들은 수업에서 가르칠 문화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사전에 문화 지도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이 영어 수업에서 사용하는 문화 지도 방법과 자료(materials)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과 응답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문화 지도 방법 및 자료에 대한 교사 인식 (N=101)

단위 : 인원수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11. 문화 지도 시 주로 학생들에게 교과내용과 관련된 문화 내용을 직접 설명한다.	2 (2.0)	14 (13.9)	26 (25.7)	53 (52.5)	6 (5.9)	3.47 (.878)
12. 문화 지도 시 주로 교과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문화적 경험을 들려준다.	2 (2.0)	3 (3.0)	14 (13.9)	66 (65.3)	16 (15.8)	3.90 (.768)
13. 문화 지도 시 주로 실제적인 사진, 그림 및 영상과 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	2 (2.0)	7 (6.9)	21 (20.8)	51 (50.5)	20 (19.8)	3.79 (.909)
14. 문화 지도 시 주로 인터넷을 활용한다.	3 (3.0)	1 (1.0)	12 (11.9)	61 (60.4)	24 (23.8)	4.01 (.818)
15. 문화 지도 시 주로 노래, 게임 및 퀴즈와 같은 활동을 한다.	5 (5.0)	34 (33.7)	38 (37.6)	21 (20.8)	3 (3.0)	2.83 (.917)
16. 문화 지도 시 주로 시, 소설 및 동화와 같은 문학 자료를 활용한다.	3 (3.0)	40 (39.6)	38 (37.6)	20 (19.8)	0 (0.0)	2.74 (.808)
17. 문화 지도 시 주로 학생들이 그룹 과제 및 발표를 하도록 한다.	4 (4.0)	30 (29.7)	34 (33.7)	27 (26.7)	6 (5.9)	3.01 (.985)

11번 ‘문화 지도 시 주로 학생들에게 교과내용과 관련된 문화 내용을 직접 설명한다.’는 문항에서 교사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 2.0%, ‘그렇지 않다’ 13.9%인 부정적인 응답과 달리 ‘그렇다’ 52.5%, ‘매우 그렇다’ 5.9%로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높았다. 이는 교사들이 영어 교과서 내용을 다루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12번 ‘문화 지도 시 주로 교과 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문화적 경험을 들려준다.’는 문항에서도 ‘매우 그렇지 않다’ 2.0%, ‘그렇지 않다’ 3.0%로 부정적 응답이 매우 적었다. 반면에 ‘그렇다’는 65.3%, ‘매우 그렇다’ 15.8%로 많은 교사들이 주로 영미 문화를 가르칠 때 본인의 경험을 들려주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교육을 위한 매체 활용에 관해 묻는 13번 문항에서는 사진, 그림 및 영상과 같은 시청각 자료 사용에 대해 ‘그렇다’는 50.5%, ‘매우 그렇다’는 19.8%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대다수의 교사들이 영미 문화 교육에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14번 ‘문화 지도 시 주로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문항에서도 대다수의 교사들(84.1%)이 영미 문화 교육에서 다양한 시청각 자료의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 자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5번 ‘문화 지도 시 주로 노래, 게임 및 퀴즈와 같은 활동을 한다.’는 문항에서 교사들은 긍정적 응답률(23.8%)보다 부정적 응답률(38.7%)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영어 교사들이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해 노래, 게임 및 퀴즈 등의 활동은 주된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16번 ‘문화 지도 시 주로 시, 소설 및 동화와 같은 문학 자료를 활용한다.’는 문항에서도 부정적 응답(42.6%)이 긍정적 응답(19.8%)보다 더 많았다. 이는 교사들이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해 문학 작품을 비교적 적게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17번 ‘문화 지도 시 주로 학생들이 그룹 과제 및 발표를 하도록 한다.’는 문항에서는 긍정(33.7%)과 부정(32.6%)의 응답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들이 문화 지도의 초점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문화 지도 초점에 대한 교사 인식 (N=101)

단위 : 인원수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18. 영어 수업에서 주로 영미 문화권의 역사, 문학, 예술, 지리, 제도, 유명인사 등과 관련된 문화 내용을 지도한다.	4 (4.0)	13 (12.9)	34 (33.7)	42 (41.6)	8 (7.9)	3.37 (.946)
19. 영어 수업에서 주로 영미 문화권의 관습, 생활양식, 언어적·비언어 적 행동양식, 사고방식 등의 내용을 지도한다.	3 (3.0)	6 (5.9)	27 (26.7)	53 (52.5)	12 (11.9)	3.64 (.878)

18번 ‘영어 수업에서 주로 영미 문화권의 역사, 문학, 예술, 지리, 제도, 유명인사 등과 관련된 문화 내용을 지도한다.’는 문항에서 약 절반에 가까운 교사들(49.5%)이 영어 수업에서 영미 문화권의 역사, 문학, 예술 등과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하여 지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부정의 응답률은 16.9%를 보였다.

19번 ‘영어 수업에서 주로 영미 문화권의 관습, 생활양식,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 사고방식 등의 내용을 지도한다.’는 문항에서는 교사들은 ‘그렇다’ 52.5%, ‘매우 그렇다’ 11.9%를 보임으로써 ‘매우 그렇지 않다’ 3%와 ‘그렇지 않다’ 5.9%와 대조되는 인식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영어 교사들이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하여 Brooks(1964)가 분류한 Big C 문화 내용과 little c 문화 내용을 모두 소재로 삼고 있지만, 두 문항에 대한 응답률을 비교했을 때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little c 문화 내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8>은 교과서, 교사용 지침서 및 교육과정에서 문화 내용을 얼마나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이다.

<표 8> 교과서, 교사용 지침서 및 교육과정의 문화 내용에 대한 교사 인식 (N=101)

단위 : 인원수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20. 현행 영어 교육과정에 서는 문화 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1 (1.0)	21 (20.8)	51 (50.5)	28 (27.7)	0 (0.0)	3.05 (.726)
21. 현행 영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는 문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 고 있다.	0 (0.0)	20 (19.8)	59 (58.4)	22 (21.8)	0 (0.0)	3.02 (.648)
22. 현행 영어 교과서에는 도전적인 흥미 있는 문 화 소재를 많이 다루고 있다.	1 (1.0)	19 (18.8)	55 (54.5)	26 (25.7)	0 (0.0)	3.05 (.698)
23. 현행 영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는 문화 소재에 따른 적절 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0 (3.0)	16 (15.8)	57 (56.4)	28 (27.7)	0 (0.0)	3.12 (.652)
24. 현행 영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 소 재를 균형 있게 제시하 고 있다.	1 (1.0)	19 (18.8)	57 (56.4)	24 (23.8)	0 (0.0)	3.03 (.685)

20번 문항 ‘현행 영어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에 대하여 부정적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 1.0%, ‘그렇지 않다’ 20.8%로 나타났다. 긍정적 응답은 ‘그렇다’ 27.7%이었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없었다. 이와는 달리 중립적 응답인 ‘보통이다’가 5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영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는 문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21번 문항에서도 부정적 응답 ‘그렇지 않다’ 19.8%, 긍정적 응답 ‘그렇다’ 21.8%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58.4%의 교사들은 중립적인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영어 교과서 문화 소재에 관한 22번 문항에서도 부정적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 각각 1.0%, 18.8%로 나타났다. 긍정적 응답도 ‘그렇다’ 25.7%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보통이다’는 54.5%로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중립의 응답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3번 문항 ‘현행 영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는 문화 소재에 따른 적절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에서도 ‘그렇지 않다’ 15.8%, ‘그렇다’ 27.7%로 나타났으며,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보통이다’ 56.4%의 중립적 응답을 한 것이 드러났다.

24번 ‘현행 영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 소재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문항에서도 또한 교사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 1.0%, ‘그렇지 않다’는 18.8%의 응답을 택했고, ‘그렇다’는 23.8%로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리고 다수의 교사들은 중립적 응답 ‘보통이다’ 56.4%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영어 교과서와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문화 내용 제시에 대한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보통이라는 중립적 응답을 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는 문화 지도 여건에 대해 교사들이 갖는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9> 문화 지도 여건에 대한 교사 인식 (N=101)

단위 : 인원수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25. 문화를 지도할 때 내용 선택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4 (4.0)	19 (18.8)	45 (44.6)	26 (25.7)	7 (6.9)	3.13 (.934)
26. 영어 수업시간에 가르 쳐야 할 문화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이 충분 하다.	3 (3.0)	40 (39.6)	38 (37.6)	20 (19.8)	0 (0.0)	2.74 (.808)
27. 영어 수업시간에 사용 할 문화 지도 수업 모형 이 충분하다.	6 (5.9)	55 (54.9)	33 (32.3)	7 (6.9)	0 (0.0)	2.42 (.699)
28. 실제 영어 수업에서 문화를 지도할 시간이 충분하다.	13 (12.9)	56 (55.4)	25 (24.8)	7 (6.9)	0 (0.0)	2.26 (.770)
29. 실제 영어 수업에서 학 생들은 문화에 대한 흥 미와 관심이 있다.	2 (2.0)	7 (6.9)	17 (16.9)	56 (55.4)	19 (18.8)	3.82 (.888)

25번 ‘문화를 지도할 때 내용 선택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문항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4.0%, ‘그렇지 않다’ 18.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그렇다’ 25.7%, ‘매우 그렇다’ 6.9%로 문화 지도 내용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지도 관련 자료의 양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26번 문항 ‘영어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할 문화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이 충분하다.’에서는 긍정적 응답률(19.8%)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부정적 응답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각각 3.0%, 39.6%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영

어 교사들이 문화 지도를 위한 내용 선택에서 어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문화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27번 ‘영어 수업 시간에 사용할 문화 지도 수업 모형이 충분하다.’는 문항에서도 긍정적 응답은 ‘그렇다’ 6.9%에 그친 반면, 부정적 응답은 ‘그렇지 않다’는 54.9%, ‘매우 그렇지 않다’는 5.9%로 조사되었다. 교사들이 문화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8번 문항도 ‘실제 영어 수업에서 문화를 지도할 시간이 충분하다.’로 긍정적 응답은 ‘그렇다’ 6.9%에 그쳤다. 이에 비해, ‘그렇지 않다’ 55.4%, ‘매우 그렇지 않다’는 12.9%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서 문화 지도와 관련하여 자료와 수업 모형의 부족과 더불어 영어 수업에서 문화 지도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가 느끼는 문화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알아보기 위한 29번 문항 ‘실제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은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다’에서 부정적 응답은 8.9%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긍정적 응답은 ‘그렇다’ 55.4%, ‘매우 그렇다’ 18.8%로 절반 이상의 교사들은 문화와 문화 교육에 대하여 학생들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영어 수업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 지도에 영향을 주는 기타 사항들에 대해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기타 문화 교육 관련 교사 인식 (N=101)

단위 : 인원수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30. 영어 수업개선을 위한 문화 지도와 관련된 연수의 기회가 충분하다.	4 (4.0)	57 (56.4)	37 (36.6)	3 (3.0)	0 (0.0)	2.39 (.616)
31. 간접적인 영미 문화 체험 공간 및 이용의 기회가 충분하다.	5 (5.0)	68 (67.3)	26 (25.7)	2 (2.0)	0 (0.0)	2.25 (.573)

30번 ‘영어 수업개선을 위한 문화 지도와 관련된 연수의 기회가 충분하다.’라는 문항에서 3.0%의 교사들만이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 대조적으로 부정적 응답은 ‘그렇지 않다’ 56.4%, ‘매우 그렇지 않다’ 4.0%로 대다수의 교사들이 문화 교육과 관련된 연수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어서 31번 ‘간접적인 영미 문화 체험 공간 및 이용의 기회가 충분하다.’는 문항에서도 긍정적 응답은 ‘그렇다’ 2.0%에 그친 반면, 부정적 응답은 ‘그렇지 않다’ 67.3%, ‘매우 그렇지 않다’ 5.0%이었다. 이 결과는 교사들이 문화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간접 영미 문화 체험 공간이 부족하고 이용 기회도 많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4.1.2 학습자 인식 분석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자의 문화와 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문화와 문화 교육에 대한 학습자 인식 (N=279)

단위 : 인원수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1.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0 (0.0)	3 (1.1)	41 (14.7)	129 (46.2)	106 (38.0)	4.21 (.726)
2. 세계 각국의 문화는 우열이 아닌 다양성을 가진 존재로서 모두 가치 가 있다.	0 (0.0)	2 (0.7)	26 (9.3)	110 (39.4)	141 (50.5)	4.40 (.686)
3. 세계 각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된다.	1 (0.4)	13 (4.7)	73 (26.2)	113 (40.5)	79 (28.3)	3.92 (.871)
4. 올바른 문화 교육을 위해 서는 문화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중 요하다.	0 (0.0)	6 (2.2)	41 (14.7)	121 (43.4)	111 (39.8)	4.21 (.768)
5. 국제화 시대에서는 영어 교육 못지않게 올바른 문 화 인식 및 가치관 교육 이 중요하다.	0 (0.0)	1 (0.4)	37 (13.3)	122 (43.7)	119 (42.7)	4.29 (.702)
6. 영어권 문화 학습이 영 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2.2)	12 (4.3)	68 (24.4)	109 (39.1)	84 (30.1)	3.91 (.951)
7. 나는 영어 수업에서의 문화 내용 이해를 통하여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6 (2.2)	14 (5.0)	90 (32.3)	98 (35.1)	71 (25.4)	3.77 (.959)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8. 문화와 문화 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다.	10 (3.6)	30 (10.6)	77 (26.8)	105 (38.6)	57 (20.4)	3.58 (1.049)	

학습자들은 1번 문항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에서 부정적 응답은 1.1%에 그쳤다. 반면에, ‘그렇다’는 46.2%, ‘매우 그렇다’ 38.0%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번 ‘세계 각국의 문화는 우열이 아닌 다양성을 가진 존재로서 모두 가치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은 ‘그렇지 않다’ 0.7%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그렇다’ 39.4%, ‘매우 그렇다’ 50.5%의 긍정적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은 문화 간 우열이 아니라 각 문화가 독립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번 문항 ‘세계 각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드러냈다. 즉, 부정적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 0.4%, ‘그렇지 않다’는 4.7%인 반면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 응답은 각각 40.5%, 28.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배움으로써 우리나라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번 문항 ‘올바른 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다.’에서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2.2%)과는 달리 ‘그렇다’ 43.4%, ‘매우 그렇다’ 39.8%의 긍정적 응답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사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문화 내용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5번 문항 ‘국제화 시대에서는 영어 교육 못지않게 올바른 문화 인식 및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에서도 대다수의 학생들(86.4%)이 국제화 시대에서 문화 교육과 더불어 올바른 문화적 인식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6번 ‘영어권 문화 학습이 영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항에서 학생들의 긍정적 응답률은 69.2%인 반면에 부정의 응답률은 6.5%에 그쳤다. 이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영어권 문화 학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학교 영어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7번 ‘나는 영어 수업에서의 문화 내용 이해를 통하여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항에서도 결과는 비슷하여 ‘그렇지 않다’ 5.0%, ‘매우 그렇지 않다’ 2.2%로 확인되었다. 반면 긍정적 응답으로는 ‘그렇다’ 35.1%, ‘매우 그렇다’ 25.4%를 보임으로써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문화 내용 학습은 흥미로운 영어 학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8번 ‘실제 영어 수업에서 문화와 문화 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다’는 문항에서 부정적 응답률 14.2%를 보였다. 반면에 긍정적 응답은 ‘그렇다’ 38.6%, ‘매우 그렇다’ 20.4%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영어 수업 시간에서 다루는 문화와 문화 교육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가 영어 수업에서 접하는 문화 학습 방법과 자료(materials)에 대해 갖는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2>과 같다.

<표 12> 문화 학습 방법 및 자료에 대한 학습자 인식 (N=279)

단위 : 인원수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9. 교과서에 나온 문화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통하 여 문화를 학습한다.	6 (2.2)	23 (8.2)	85 (30.5)	122 (43.7)	43 (15.4)	3.62 (.917)
10. 교과서에 나온 문화에 대한 교사의 경험을 들으 며 학습한다.	5 (1.8)	26 (9.3)	105 (37.6)	113 (40.5)	30 (10.8)	3.49 (.873)
11. 실제적인 사진, 그림 및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	4 (1.4)	18 (6.5)	88 (31.5)	116 (41.6)	53 (19.0)	3.70 (.898)
12.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문화내용을 학습한다.	10 (3.6)	27 (9.7)	65 (23.3)	101 (36.2)	76 (27.2)	3.74 (1.073)
13. 노래, 게임 및 퀴즈 활동을 통하여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	5 (1.8)	41 (14.7)	96 (34.4)	88 (31.5)	49 (17.6)	3.48 (1.003)
14. 시, 소설과 같은 문학을 통하여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	23 (8.2)	79 (28.3)	111 (39.8)	49 (17.6)	17 (6.1)	2.85 (1.007)
15. 개별 혹은 그룹 과제 및 발표를 통하여 문화 내용을 학습 한다.	10 (3.6)	63 (22.6)	117 (41.9)	68 (24.4)	21 (7.5)	3.10 (.953)
16. 문화 교육에서 다양한 자료를 접하면 좋겠다.	5 (1.8)	10 (3.6)	74 (26.5)	104 (37.3)	86 (30.8)	3.92 (.935)

문화 학습 방법 및 자료를 묻는 9번 문항 ‘나는 주로 교과서에 나온 내용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통하여 문화를 학습한다.’에 대해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8.2%, ‘매우 그렇지 않다’ 2.2%의 부정적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긍정적 응답은 ‘그렇다’ 43.7%, ‘매우 그렇다’ 15.4%로 나타났다. 즉,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영어 수업에서 문화 교육이 교사의 설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10번 문항 ‘나는 주로 교과서에 나온 문화 내용에 대한 교사의 경험을 들으며 학습한다.’에 대한 응답으로 부정적 응답은 ‘그렇지 않다’ 9.3%, ‘매우 그렇지 않다’ 1.8%로 약 10%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그렇다’ 40.5%, ‘매우 그렇다’ 10.8%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영어 교사가 문화 교육을 할 때 문화 내용을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매체를 알아보기 위한 11번 문항 ‘나는 주로 실제적인 사진, 그림 및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에서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6.5%, ‘매우 그렇지 않다’ 1.4%의 부정적 응답을 보였다. 이에 반해 긍정적 응답은 ‘그렇다’ 41.6%, ‘매우 그렇다’ 19.0%로 나타난 바, 학생들은 영어 수업에서 문화 교육을 위해 시청각 자료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다음 12번 문항 ‘나는 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에서도 학생들은 부정적 응답 ‘그렇지 않다’ 9.7%, ‘매우 그렇지 않다’ 3.6%의 낮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긍정적 응답은 ‘그렇다’ 36.2%, ‘매우 그렇다’ 27.2%로 높게 나타났다. 11번과 12번 문항의 설문 결과를 종합했을 때, 학생들은 문화 교육을 위한 매체로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여 사진, 동영상 등의 실제적인 자료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3번 문항 ‘나는 주로 노래, 게임 및 퀴즈 활동을 통하여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에 관해서 부정적 응답은 ‘그렇지 않다’ 14.7%, ‘매우 그렇지 않다’ 1.8%로 나타났고, 긍정적 응답은 ‘그렇다’ 31.5%, ‘매우 그렇다’ 17.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화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노래나 게임 및 퀴즈 등의 활동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문학 자료의 활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14번 문항 ‘나는 주로 시, 소설 등과 같은 문학을 통하여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에서는 부정적 응답 ‘그렇지 않다’ 28.3%, ‘매우 그렇지 않다’ 8.2%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응답은 ‘그렇다’ 17.6%, ‘매우 그렇다’ 6.1%의 응답률을 보였다. 문학 자료 활용 여부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은 문화 교육을 위해 활용되는 매체를 묻는 문항의 부정적 응답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화 교육을 위한 매체로 문학 자료는 가장 소극적으로 활용된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15번 ‘나는 주로 개별 혹은 그룹 과제 및 발표를 통하여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는 문항에서 부정적 응답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각각 22.6%, 3.6%를 차지했다. 긍정적 응답도 ‘그렇다’ 24.4%, ‘매우 그렇다’ 7.5%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긍정의 응답률이 높지만 개별과제 또는 그룹과제와 발표를 통한 문화 학습에 대해서 학생들은 교사와 마찬가지로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16번 ‘나는 현재 영어 수업에서 문화 내용 이해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접하면 좋겠다.’는 문항에서 부정적 응답은 ‘그렇지 않다’ 3.6%, ‘매우 그렇지 않다’ 1.8%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긍정적 응답 ‘그렇다’ 37.3%, ‘매우 그렇다’는 30.8%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런 결과를 통해 현재 영어 수업에서는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해 교사가 여러 매체와 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적절하고 다양한 문화 교육 자료가 추가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13>은 학습자가 느끼는 문화 학습 내용의 초점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표 13> 문화 학습 내용 초점에 대한 학습자 인식 (N=279)

단위 : 인원수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17. 나는 주로 영어권 문화의 역사, 문학, 예술, 지리, 제도, 유명인사 등과 관련된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	11 (3.9)	55 (19.7)	107 (38.4)	79 (28.3)	27 (9.7)	3.20 (.994)
18. 나는 주로 영어권 문화의 관습, 생활양식,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 사고방식 등의 내용을 학습한다.	11 (3.9)	47 (16.8)	119 (42.7)	81 (29.0)	21 (7.5)	3.19 (.940)

17번 문항 ‘나는 주로 영어권 문화의 역사, 문학, 예술, 지리, 제도, 유명인사 등과 관련된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에 대한 응답으로 학생들은 부정적 응답 ‘그렇지 않다’ 19.7%, ‘매우 그렇지 않다’는 3.9%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긍정적 응답은 ‘그렇다’ 28.3%, ‘매우 그렇다’ 9.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7번 문항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Brooks(1964)가 분류한 Big C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은 문화 학습에 있어 Big C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18번 ‘나는 주로 영어권 문화의 관습, 생활양식,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 사고방식 등의 내용을 학습한다.’는 문항에서도 부정적 응답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각각 16.8%, 3.9%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응답은 ‘그렇다’ 29.0%, ‘매우 그렇다’ 7.5%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문화 학습에서 little c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표 14>는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 내용에 대해 학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14> 영어 교과서 문화 내용에 대한 학습자 인식 (N=279)

단위 : 인원수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19. 현행 영어 교과서에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 운 문화 내용이 많이 포 함되어 있다.	9 (3.2)	34 (12.2)	122 (43.7)	81 (29.0)	33 (11.8)	3.34 (.950)
20. 현행 영어 교과서에는 문화에 대한 주제가 도전 적이고 흥미롭다.	17 (6.1)	50 (17.9)	112 (40.1)	76 (27.2)	24 (8.6)	3.14 (1.011)
21. 현행 영어 교과서에는 문화에 대한 충분한 자료 와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9 (3.2)	32 (11.5)	136 (48.7)	81 (29.0)	21 (7.5)	3.26 (.877)
22. 나는 현행 영어 교과서 에는 현 시대에 맞는 문 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8 (2.9)	27 (9.7)	134 (48.0)	87 (31.2)	23 (8.2)	3.32 (.867)
23. 나는 현행 영어 교과서 에 나온 문화 내용의 양 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8 (2.9)	32 (11.5)	130 (46.6)	79 (28.3)	30 (10.8)	3.33 (.916)
24. 나는 현행 영어 교과서 에 나온 문화 내용을 학습 하는 것이 영어권 문화 이 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다.	6 (2.2)	22 (7.9)	113 (40.5)	94 (33.7)	44 (15.8)	3.53 (.924)

19번 문항인 ‘현행 영어 교과서에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 3.2%, ‘그렇지 않다’ 12.2%의 부정적 응답을 보였다. 이에 비해 긍정적 응답은 ‘그렇다’ 29.0%, ‘매우 그렇다’ 11.8%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영어 교과서의 문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새롭게 접하는 내용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20번 ‘현행 영어 교과서에는 문화에 대한 주제가 도전적이고 흥미롭다.’는 문항에서도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17.9%, ‘매우 그렇지 않다’ 6.1%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긍정적 응답은 ‘그렇다’ 27.2%, ‘매우 그렇다’ 8.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또한 학생들은 영어 교과서의 문화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도 흥미롭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1번 ‘현행 영어 교과서에는 문화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는 문항에도 학생들은 부정적 응답 ‘그렇지 않다’ 11.5%, ‘매우 그렇지 않다’ 3.2%로 나타난 반면, 긍정적 응답 ‘그렇다’ 29.0%, ‘매우 그렇다’ 7.5%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 관련 자료와 설명의 정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2번 ‘나는 현행 영어 교과서에는 현 시대에 맞는 문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9.7%, ‘매우 그렇지 않다’ 2.9%의 응답을 한데 반해, ‘그렇다’ 31.2%, ‘매우 그렇다’는 8.2%의 응답을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영어 교과서에 반영된 문화 내용들이 현재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 교과서에서 제시된 문화 내용의 양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23번 ‘나는 현행 영어 교과서에 나온 문화 내용의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문항에서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11.5%, ‘매우 그렇지 않다’ 2.9%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에, 긍정적 응답은 ‘그렇다’ 28.3%, ‘매우 그렇다’ 10.8%를 보여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영어 교과서에 실린 문화 내용의 양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24번 ‘나는 현행 영어 교과서에 나온 문화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영어권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응답률이 각각 7.9%, 2.2%를 차지한 것에 비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률이 각각 33.7%, 15.8%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영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영어권 문화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표 15>는 영어 수업에서 문화 교육 시간에 대해 학습자들이 갖는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5> 문화 교육 시간에 대한 학습자 인식 (N=279)

	단위 : 인원수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25. 문화 교육 시간이 충분 하다고 생각한다.	15 (5.4)	38 (13.6)	104 (37.3)	79 (28.3)	43 (15.4)	3.35 (1.065)

영어 수업에서 나타나는 문화 학습 시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25번 문항 ‘학교 영어 수업에서 영어권 문화 교육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에서 부정적 응답은 ‘그렇지 않다’ 13.6%, ‘매우 그렇지 않다’ 5.4%인데 반해, 긍정적 응답은 ‘그렇다’ 28.3%, ‘매우 그렇다’ 15.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현재 영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교육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영미 문화 교육에 대한 영어 교사와 학습자 인식 비교

본 절에서는 영어 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와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서 공통된 문항을 토대로 문화 교육, 수업 실태 및 여건 등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을 비교·분석한다.

<표 16> 문화 이해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교사	1	101	4.47	.593
	학생	1	279	4.21	.726
<i>t (p)</i>			-3.154 (.001)		

$p^* < 0.05$

위 <표 16>에서 보듯이 문화 이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문항에 교사 집단은 평균이 4.47±.593, 학생 집단은 4.21±.726로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생 집단에 비해 교사 집단에서 세계 문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17 > 문화 간 우열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세계 각국의 문화는 우열이 아닌 다양성을 가진 존재로서 모두 가치가 있다.	교사	2	101	4.56	.518
	학생	2	279	4.40	.686
<i>t</i> (<i>p</i>)				-2.526(.012)	

$p^* < 0.05$

<표 17>의 문항에서 교사 집단은 평균이 4.56±.518, 학생 집단은 4.40±.686로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계 각국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를 학생 집단보다 교사 집단에서 더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 18 > 문화 교육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세계 각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교사	3	101	4.47	.540
	학생	3	279	3.92	.871
<i>t</i> (<i>p</i>)				-7.316(.000)	

$p^* < 0.05$

<표 18>의 문항에서 교사 집단은 평균이 4.47±.540, 학생 집단은 3.92±.871로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생 집단에 비해 교사 집단에서 세계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19> 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올바른 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다.	교사	4	101	4.47	.540
	학생	4	279	4.21	.768
<i>t (p)</i>				-3.642(.000)	

$p^* < 0.05$

<표 19>의 문항에서 교사 집단은 평균이 4.47±.540, 학생 집단은 4.21±.768로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생 집단보다 교사 집단에서 올바른 문화 교육을 위해서 교사 스스로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문화 인식 및 가치관 교육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국제화시대에서는 영어교육 못지않게 올바른 문화 인식 및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	교사	5	101	4.63	.484
	학생	5	279	4.29	.702
<i>t (p)</i>				-5.426(.000)	

$p^* < 0.05$

<표 20>의 문항에서 교사 집단은 평균이 4.63±.484, 학생 집단은 4.29±.702로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 집단이 학생 집단보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 교육과 더불어 올바른 문화 인식 및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1> 교사 설명 활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교과내용과 관련된 교사의 설명이 추가 된다.	교사	11	101	3.47	.878
	학생	10	279	3.62	.917
<i>t</i> (<i>p</i>)			1.469(.143)		

$p^* < 0.05$

<표 21>은 문화 지도 방법으로서 교사의 설명에 대한 것인데, 학생 집단 ($M=3.62\pm.917$)의 평균이 교사 집단($M=3.47\pm.36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2> 교사 경험 활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교과내용과 관련된 교사의 경험이 추가 된다.	교사	12	101	3.90	.768
	학생	11	279	3.50	.877
<i>t</i> (<i>p</i>)			-4.344(.000)		

$p^* < 0.05$

<표 22>에서 보는 것처럼 교사 경험 활용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 집단 ($M=3.50\pm.877$)보다 교사 집단($M=3.90\pm.768$)에서 문화 내용을 가르칠 때 교사의 경험을 들려주는 것이 추가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3> 시청각 자료 활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실제적인 사진, 그림, 영상과 같은 시청각 자료가 사용된다.	교사	13	101	3.79	.909
	학생	12	279	3.70	.898
<i>t (p)</i>			-.356(.393)		

$p^* < 0.05$

시청각 자료 활용 여부에 관한 문항에서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4> 인터넷 활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인터넷을 활용한다.	교사	14	101	4.01	.818
	학생	13	279	3.73	1.070
<i>t (p)</i>			-2.655(.003)		

$p^* < 0.05$

그러나 <표 24>에서 보듯이 인터넷 활용 여부에 관한 문항에서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 집단 ($M=3.73 \pm 1.070$)은 교사 집단($M=4.01 \pm .818$)보다 문화 교육에 있어서 인터넷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실제 영어 수업에서 교사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인터넷이 학습자가 느끼기에는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매체에 불과하고 문화 교육 내용은 주로 그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교사의 설명과 경험 등의 소극적인 교육 방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표 25> 노래, 게임 및 퀴즈 등의 활동 활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노래, 게임 및 퀴즈와 같은 활동을 한다.	교사	15	101	2.83	.917
	학생	14	279	3.48	1.003
<i>t</i> (<i>p</i>)			5.725(.000)		

$p^* < 0.05$

위 <표 25>는 노래, 게임 및 퀴즈 등 활동의 활용 여부에 관해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 집단(M=2.83±.917)이 학생 집단(M=3.48±1.003)보다 문화를 지도할 때 노래, 게임과 퀴즈 등의 활동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26> 문학 자료 활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시, 소설 및 동화와 같은 문학 자료를 활용한다.	교사	16	101	2.74	.808
	학생	15	279	2.86	1.003
<i>t</i> (<i>p</i>)			1.061(.290)		

$p^* < 0.05$

<표 26>에 제시된 문학 자료 활용 여부에 관한 문항에서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생 집단(M=2.86±1.003)과 교사 집단(M=2.74±.808) 모두에서 문화 교육을 위한 소재로 문학 자료에 대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표 27> 그룹과제 및 발표 활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주로 그룹과제 및 발표를 하도록 한다.	교사	17	101	3.01	.985
	학생	16	279	3.09	.955
<i>t (p)</i>			.745(.457)		

$p^* < 0.05$

문화 내용과 관련 그룹 과제 및 발표의 활용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7>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 집단(M=3.09±.955)과 교사 집단(M=3.01±.985) 모두 문화 교육을 위해 발표와 그룹과제 등의 활용에 대해 중립적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표 28> 문화 교육 초점(Big C)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역사, 문학, 예술, 지리, 제도, 유명인사 등과 관련된 문화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교사	18	101	3.37	.946
	학생	18	279	3.20	.994
<i>t (p)</i>			-1.453(.147)		

$p^* < 0.05$

<표 28>은 문화 교육의 초점을 Big C 문화에 맞춰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 따르면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29 > 문화 교육 초점(little c)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관습, 생활양식,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 사고방식 등과 관련된 문화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교사	19	101	3.64	.878
	학생	19	279	3.19	.939
<i>t (p)</i>			-4.232(.000)		

$p^* < 0.05$

이번에는 문화 교육의 초점이 little c 문화에 맞춰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29>에 제시되어 있듯이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 집단(M=3.19±.939)보다 교사 집단(M=3.64±.878)에서 문화 교육 내용의 초점이 little c에 있다고 생각하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30 > 교과서 문화 내용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영어 교과서 및 지도서에는 문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사	21	101	3.02	.648
	학생	22	279	3.26	.872
<i>t (p)</i>			2.872(.004)		

$p^* < 0.05$

현행 영어 교과서의 문화 내용이 충분히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30>가 가리키듯이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 집단(M=3.02±.648)이 학생 집단(M=3.26±.872)보다 현행 영어 교과서에 문화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영어 교과서 소재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영어 교과서에는 도전적인 흥미 있는 문화 소재를 많이 다루고 있다.	교사	22	101	3.05	.698
	학생	21	279	3.43	.890
<i>t (p)</i>			4.346(.000)		

$p^* < 0.05$

<표 31>은 현행 영어 교과서에서 다루는 소재에 관한 설문 분석의 결과이다.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 집단(M=3.05±.698)이 학생 집단(M=3.43±.890)보다 현행 영어 교과서에 실린 문화 소재들은 흥미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표 32> 문화 교육 시간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실제 영어 수업에서 문화 교육 시간이 충분하다.	교사	28	101	2.26	.770
	학생	9	279	3.35	1.065
<i>t (p)</i>			10.937(.000)		

$p^* < 0.05$

이어서 실제 영어 수업시간에서 문화 교육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있는지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표 32>을 보자.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교사 집단(M=2.26±.770)이 학생 집단(M=3.35±1.065)보다 영어 수업시간에서 문화 교육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들은 문화 교육과 관련한 문항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을 한 바를 비추어 볼 때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응답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황에 맞게 문화 교육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3> 학생 흥미도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문항	구분	번호	N	평균(M)	표준편차(SD)
실제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은 문화와 문화 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다.	교사	29	101	3.82	.888
	학생	8	279	3.58	1.049
<i>t</i> (<i>p</i>)				-2.258(.025)	

$p^* < 0.05$

위 <표 33>은 문화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에 대해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학생 집단(M=3.58±1.049)은 교사 집단(M=3.82±.888)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교사가 느끼는 학생들의 흥미도가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흥미도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문화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은 재미있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효과적인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한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견해

본 절에서는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해 학교 수업에서의 문화 교육의 정도, 자료, 매체, 문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찰을 하도록 하겠다.

4.3.1 교사의 견해

인터뷰에 나타난 교사들의 언급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한 시간과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문화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터뷰에 응한 모든 교사들은 문화 교육의 문제점으로 문화 교육을 위한 시간의 부족을 언급했다. 가령 교사 A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영어 교육 환경은 독해력 향상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할 교과서 및 보충학습 교재 내용을 다루기에도 수업 시간이 부족하고, 만약 문화 내용을 지도한다면 수업 진도를 나가는데 분명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와 같은 A교사의 견해는 교사 설문 결과 28번 문항 ‘실제 영어 수업에서 문화 교육 시간이 충분하다.’에서 101명의 교사 중 68.3%의 교사들이 문화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양적인 분석의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한편 문화 교육의 정도에 대해 언급했던 교사 B는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단편적인 문화 내용만 설명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학교 일정에 따라서 여유가 있을 때는 Youtube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영상 등을 찾아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치게 일회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뷰에 응한 모든 교사들에 따르면, 실제 영어 수업에서 교재에 제시된 영미 문화 내용을 지도하기 위해서 교사의 설명으로는 문화 설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영상 등의 시청각 매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공통적 응답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A교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문화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분명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교과서 본문 내용에 문화 내용을 연계하여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지필고사의 경우 단원별 본문 내용, 보충학습 교재와 모의고사 지문을 출제범위로 두고 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중에서 교사가 손쉽게 평가 문항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교과서 본문 내용을 문화 내용과 연결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B교사는 문화 교육의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는 가르치고자 하는 문화 내용이 비록 적은 분량일지라도 규칙적으로 여러 차례 학생들이 실제 문화 내용을 시청할 수 있는 영어 교육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 C는 문화 교육을 수업 시간 외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지도하는 방안과, 학교 차원에서 문화 교육 주간을 만들거나 문화 체험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문화 교육을 위한 자료 및 매체에 관한 인터뷰 결과에서 교사 D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문화 교육 자료의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교과서에 다양한 문화 내용을 다루는 지문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문화 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문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해도 자료를 준비하고 제작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와 비슷하게 교사 E는 영어 교과서는 문화 내용을 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보다 다소 다양해졌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지도서에 구체적인 지도 방안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서 실제 문화 내용을 교육할 때 교사의 역량과 상식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어서 교사들 사이의 경험과 지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문화를 올바르게 지도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문화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자료가 적절히 제공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교사 간 경험과 지식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 F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가르치고자 하는 문화 관련 정보를 습득해도 하나의 문화 정보는 해당 문화권의 다른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문화권에 대해서 교사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엽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견해는 설문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교사 설문지 26번 ‘영어 수업시간에서 가르쳐야할 문화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이 충분하다’는

문항과 관련하여 충분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19.8%에 그쳤고, 27번 ‘영어 수업시간에 사용할 문화 지도 수업 모형이 충분하다’는 문항과 관련하여 충분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6.9%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대다수의 교사들이 문화 교육을 위한 자료와 수업 모형의 부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화 교육 자료와 수업 모형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D는 이렇게 제안했다.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문화 교육을 위한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전국의 교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문화 교육 자료들을 종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교사 인증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개발이 방안이 될 것이다. 문화가 지역의 특색을 담아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자료가 공유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과서와 지도서의 문제를 언급했던 교사 E는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이 보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한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확대되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때문에 교사 연수 및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4.3.2 학습자의 견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보자. 문화 교육의 정도에 관해 언급한 중학생 A는 “문화 내용을 더 많이 배우고 싶다. 학교 영어 수업시간에 많은 활동을 하는데 보통 단어나 문법, 본문 내용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영어 수업 시간에 어떤 것을 배운 것이 문화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중학생 B는 문화 내용을 배워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들도 문법을 설명할 때처럼 강조하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수업 중간에 아주 작은 양의 문화 내용을 말해줘도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으로는 중학생 A의 의견을 들 수 있다.

“교과서만 중심으로 다루다보면 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시간이 너무 적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의 문화 수업보다 선생님이 따로 문화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게임과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중학생 B는 평가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문화 내용을 수업에 많이 포함시킬 수 없다면, 그 내용은 실제 영어 원어민들의 회화 속에 숨어있는 문화적 배경이나 어휘의 쓰임과 같이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 교육 자료와 매체에 대한 질문에서, 모든 학생들은 현재 영어 수업에서 나타나는 문화 교육 자료나 매체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자료나 매체에 대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알아본 결과, 고등학생 C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학습하고자 하는 문화 내용과 관련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적인 경험을 얘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교과서 본문에서 다루는 문화 내용은 역사나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선생님과 학생들이 경험했던 문화적인 요소 등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흥미를 유발하는데도 좋을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중학생 D는 현재 나타나는 문화 자료와 매체에 모두 만족하지만,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나타나는 팝송, 문학 및 영화, 드라마 등의 방송매체를 통한 문화 교육을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으로는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문화 내용이 있는 관련 영상 등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교사 설명이 주가 되기 때문에 흥미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인터뷰에서 수집된 기타 효과적인 문화 교육 문화 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으로는 ‘원어민 교사를 통해서 문화 내용을 학습하고 싶다’,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문화 내용 또한 수준별로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면 좋을 것 같다’, ‘영어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영어 회화를 사용하면 문화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 영어권에서의 유머 등 문화 내용이 숨어있는 회화 패턴을 알고 싶다’ 등이 있었다.

4.4 효과적인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한 논의

지금까지 영어 교사와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양적 분석 결과 교사와 학습자 모두 문화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교사가 문화와 문화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효과적인 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데 매우 바람직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집단 모든 응답에서 문화와 문화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표 16>부터 <표 20>까지에서 나타난 교사와 학습자의 응답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전반적 응답은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학습자들의 응답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각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률을 검토했을 때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점과 부정적인 응답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두 집단 간의 불일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문화에 대해서 보다 바람직하게 인식하고 학교에서 이뤄지는 문화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제고(cognition awareness)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실제 학교 영어 수업에서의 문화 교육에서 나타나는 매체 사용에 대한 두 집단의 견해에는 흥미로운 차이가 있다.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한 자료 및 매체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을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 영어 수업시간에 나타나는 교육 자료 및 매체

교사(N=101)			학생(N=279)		
자료	비율(%)	수(명)	자료	비율(%)	수(명)
인터넷	84.2	85	인터넷	63.4	177
교사 경험	81.1	82	교사 경험	51.3	143
시청각 자료	70.3	71	시청각 자료	60.6	169
교사 설명	58.4	59	교사 설명	59.1	165
그룹 과제 및 발표	32.6	33	그룹 과제 및 발표	31.9	89
게임, 노래 등 활동	23.8	24	게임, 노래 등 활동	49.1	137
문학	19.8	20	문학	23.7	66

실제 사용되는 매체에서는 인터넷, 교사의 경험, 시청각 자료에 대해서 학생들은 교사들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정도의 응답률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노래와 게임, 퀴즈 등의 활동을 사용한다는 교사들의 응답보다 학생들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Youtube 등을 활용하여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는 교사들의 지도 방법 혹은 교사의 경험을 전달하는 지도 방법이 학생들에게 문화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인상적이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교과서에 나온 문화 내용을 바탕으로 짧은 교사의 설명이 자주 주어진다고 응답한 점을 보았을 때, 교사들은 실제로 인터넷이나 시청각 자료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노래와 게임, 퀴즈 등의 활동에 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비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교사들에 비해 학생들은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문화를 학습했던 것이 보다 더 기억에 남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김경희(2014)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노래, 게임 등의 활동을 선호한 반면, 교사는 교사나 학생의 경험담을 말하거나 문화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등의 좀 더 소극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다양한 매체의 사용에 관하여 노력을 함과 동시에 적절한 상황에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 교육의 효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Big C 문화 내용과 little C 문화 내용에 관한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 상대적으로 교사들은 little c 문화 내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교육의 목표가 타문화 사람들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 관습 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Celce-Murcia(2008: 46)가 21세기에는 의사소통 중심으로 이동하며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의 신장은 사회문화적 능력(socio-cultural competence)과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의 신장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문화 교육이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과 교수 방법, 자료 등의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영어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습자 간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설문 결과 교과서에 관한 영역에서 교사와 학습자 모두 영어 교과서에 관한 문항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 간 인식의 일치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 집단은 학생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어 교과서에 포함된 소재, 내용, 양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사들이 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실제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재와 내용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생들의 경우 현재 교과서의 문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교사에 비해 만족하는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과서의 문화 내용이나 소재, 분량의 개선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제시된 교과서의 문화 내용들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5.1 요약

본 연구는 영미 문화 교육에 대한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 101명과 학습자 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들과 학습자들의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효과적인 문화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와 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두 집단 모두 문화와 문화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교사들이 문화와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특히 타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서 학습자들이 보통이라고 여기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서로의 의견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 영미 문화 교육 시간에 대해서 대다수의 교사들은 문화 교육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화와 문화 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에 대해서 교사가 느끼는 학습자들의 흥미도가 실제 학습자들이 느끼는 흥미도보다 약간 높았다.

둘째, 영미 문화 교육 자료에 있어서 교사의 경험, 인터넷 활용, 노래와 퀴즈 등 활동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영미 문화 교육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매체에 대한 두 집단 간의 불일치가 존재하였다. 이 결과는 교사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전달되는 문화 교육 방법에 대한 학습자들의 선호가 설문 결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문화 교육을 위한 소재에 관해서는 little c에 해당하는 문화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교사 집단에서는 영미 문화권의 역사, 예술, 문학, 제도 등과 관련된 문화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항보다 관습, 생활양식,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 사고방식 등과 관련된 문화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항에서 긍정적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자 집단에서는 관습, 생활양식,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 사고방식 등과 관련된 문화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항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바, 학습자들은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little c에 해당하는 문화 내용을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행 영어 교과서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을 비교했을 때,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사들은 현행 영어 교과서, 참고서 및 지도서에 흥미로운 주제의 문화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문항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학습자들은 영어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화 내용의 주제, 내용, 분량에 대해 전반적으로 교사보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2 교육적 시사점

연구 결과를 통해서 효과적인 중·고등학교 영미 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결과 교사들은 문화 지도를 위한 자료 및 매체, 수업 모형, 체험 공간 등의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대다수의 교사는 영어 교과서가 다양한 문화 소재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문화 내용에 관한 충분한 자료와 활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가 영미 문화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매체 등의 개발과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참고서 및 지도서 내용이 보다 충분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문화 내용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던 교사 E는 현재의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 내용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본문과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은 현재 입시 위주 교육 환경에서 영어 수업이 독해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화 교육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는데 제약이 있고, 따라서 문화 내용과 본문과의 연계 등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평가 기준에 관련하여 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 간 공통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평가 단계까지 연결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도 있는 내용으로 마련한 후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에서 교사의 역량과 상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과, 문화 지도 관련 연수가 부족하다는 설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문화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 간의 지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인식은 오래 전 형성되었기 때문에 변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교사의 연수나 전문성 신장을 통해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Borg, 2006). 설문 결과에서 확인한 바, 교사들은 어학연수, 해외 거주, 문화 지도 과목 수강 등의 배경 정보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문화 지도 방법과 소재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현재 바람직한 문화 교육이 이뤄지기 위한 전제 조건인 교사의 경험 및 지식의 차이는 교사 연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설문에 응한 전체 교사 중 문화 지도와 관련된 연수의 기회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3명(3.0%)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문화 지도 수업 모형에 대한 부족감을 느꼈다는 것을 비추어볼 때, 문화에 관한 교사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영미 문화에 대한 교사의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신장시키고, 구체적인 문화 교육 방법, 절차, 활동 등에 대한 지침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는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 문화 교육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사의 요구와 학습자의 요구를 적절히 타협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문화 교육 내용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떠한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5.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영어 교사 및 강사 101명, 중학생 142명과 고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분석 결과를 타 지역의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와 학습자들의 의견으로 확대하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실험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은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뤄지는 수업과는 다른 수업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약이 있다.

5.4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논문은 문화 교육에 대한 영어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문화 교육 방안에 관해 체계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그러나 이 논문은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지만 각 학교급간의 인식의 차이는 비교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식의 차이와 실제 문화 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식 연구에서 벗어나 실제 문화 교육을 통하여 영어의 다른 기능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습자들의 인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화 교육 방안이 결국 교사의 수업 실천과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강영실(2008).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의 문화내용분석 및 효율적인 문화지도방안,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11).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4],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5).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서울: 교육부.
- 김경희(2014). 중학교 영어교사와 학생의 문화에 대한 인식 및 문화 교육 실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근영(2005). 영어교육의 극대화를 위한 문화지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진(2014). 중학교 영어 교과서 문화 내용에 대한 학습자 흥미도, 『현대영어영문학』 제58권 1호 p.43~61.
- 김선미(2013). 영미문화를 이용한 영어교육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배(2013). 중학생을 위한 다문화 영어 수업 지도안 개발을 위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식(2003). 영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 : 중학교 개별 학습자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미(2011).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문화내용 분석과 효과적인 문화지도 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2011).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의 문화내용 분석과 문화 교육의 실태조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윤정(2009).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분석을 통한 문화 지도 방안 연구 : 2007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지영(2007). 중학교 영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에 대한 현황 및 인식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규(2011). 초등영어교육에서의 문화인식 고찰,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미선(2013). 중등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 교육 현황 및 수업지도안 :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은숙(2002). *영어교육을 위한 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중범(2007). *중학교 영어교육의 문화지도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찬이(2013). *초등학교 5, 6학년 검정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문화요인 분석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은미(2005). *영어교육에서의 문화적 인식 : 중등학교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미(2007).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문화지도 방법 -미국 문화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문화 소재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운(2016). *초등학교 영어교과 문화지도 실태 및 교사 인식 조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형(2007).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지도 방안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숙(2013). *중학교 영어 수업에서의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및 현황-한국인·원어민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경(2012). *교사와 학생들의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3, 4학년 검인정 영어교재에 나타난 문화 내용 분석*,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소영(2007). *중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의 문화내용 분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rg, S. (2006). *Teacher cognition and language education : Research and practice*.
 Condon : Continuum.
- Brown, H. D. (2015).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Eaglewood Cliffs: Practice Hall, Inc.
- Brooks, N. H. (1964).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 Celce-Murcia, M. (2008). *Rethinking the role of communicative compet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USA.
- Condon, E.C. (1973). *Introduction of cross cultural communication*,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Hammerly, H. (1986). *Synthesis in language teaching: An introduction of linguistics*, BC: Second Language Publication.
- Kramersch, C. (1993).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do, R. (1964a). *Language teaching: A scientific approach*. New York: McGraw-Hill International Book.
- Lado, R. (1964b).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pplied linguistics for language teacher*: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pir, E. (1949). *Selected writings in language, culture, and personality*, D.G. Mandelbau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eelye, H. N. (1993).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nd ed.),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 Stern, H. H. (1992).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s*.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mpany.
- Taylor, E. B. (1973). *Primitive cultur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Whorf, B. L. (1956).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Selected writings of Benjamin Lee Whorf*. Caroll, J.B, Levinson, S.C & Lee, P.(Eds). Cambridge, MA: MIT Press.

<Abstract>

**A Study of English Teachers and Learners' Perceptions of
Teaching and Learning Culture**

DongGeun Gwak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onghoon Kim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overall perceptions of secondary English teachers and learners on teaching and learning cultures, find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cultural education between the teacher and learner group, and to suggest effective ways to teach English culture in classe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perception of secondary English teachers and learners about English culture education?

Second,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econdary English teachers and learners' perceptions of English culture education?

Third, what are the improvements for effective cultural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the data from 101 English teachers teaching in Jeju Island and 279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18.0 program. The major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eachers and learners' perceptions of culture and culture education were mostly high in the proportion of positive response. Regarding cultural educational materials and media, there was a mismatch in perception of the medium actually used in classes between two groups. As for the contents of culture education, teachers' groups were found to be more likely to educate students based on cultural contents about so-called 'little c'. With regard to current English textbooks, teacher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not satisfied with textbooks, reference books and instructional books available in actual classes. In contrast, students were found to be showing satisfaction with the content and quantity about culture of the textbook, indicating an average of higher figures than teac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nglish cultural education be effectively provided through efforts to develop data and media, enhance teachers expertise through quality teacher training, and improve teacher awareness.

부 록

(부록 1) 교사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학교 업무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중고등학교 영어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육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영어 수업에서의 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연구 자료를 얻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고 선생님의 성의 있는 답변은 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의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위 연구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설문에 참여해 주심에 거듭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곽 동 근

▲ 다음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연령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교육 경력 : ① 1-5년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 이상
4. 근무학교 :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5. 영어권 국가에서의 어학연수나 거주 경험 : ① 유 ② 무
6. 대학에서 문화와 문화 지도방법에 관한 과목 수강 여부 : ① 유 ② 무
7. 문화 교육에 관한 연수 경험 : ① 유 ② 무

아래의 질문을 잘 읽으신 후, 알맞은 항목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 세계 각국의 문화는 우열이 아닌 다양성을 가진 존재로서 모두 가치가 있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3. 세계 각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4. 올바른 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5. 국제화시대에서는 영어교육 못지않게 올바른 문화 인식 및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6. 문화 교육은 학습자에게 영어를 쉽게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7. 문화 교육은 의사소통 시 오해와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8. 문화 교육은 목표문화와 우리 문화의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9. 영어 수업에서 가르칠 문화 내용들을 알고 있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0. 수업 계획 단계에서 단원별로 문화지도를 위한 차시내용을 계획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1. 문화 지도 시 주로 학생들에게 교과내용과 관련된 문화 내용을 직접 설명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2. 문화 지도 시 주로 교과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문화적 경험을 들려준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3. 문화 지도 시 주로 실제적인 사진, 그림 및 영상과 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4. 문화 지도 시 주로 인터넷을 활용한다. (Google, Youtube 등)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5. 문화 지도 시 주로 노래, 게임 및 퀴즈와 같은 활동을 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6. 문화 지도 시 주로 시, 소설 및 동화와 같은 문학 자료를 활용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7. 문화 지도 시 주로 학생들이 그룹 과제 및 발표를 하도록 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8. 영어 수업에서 주로 영미 문화권의 역사, 문학, 예술, 지리, 제도, 유명인사 등과 관련된 문화 내용을 지도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9. 영어 수업에서 주로 영미 문화권의 관습, 생활양식,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 사고방식 등의 내용을 지도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0. 현행 영어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1. 현행 영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문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2. 현행 영어 교과서에는 도전적인 흥미 있는 문화 소재를 많이 다루고 있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3. 현행 영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는 문화 소재에 따른 적절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4. 현행 영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 소재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5. 문화를 지도할 때 내용 선택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6. 영어 수업시간에 가르쳐야 할 문화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이 충분하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7. 영어 수업시간에 사용할 문화 지도 수업 모형이 충분하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8. 실제 영어 수업에서 문화를 지도할 시간이 충분히 존재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9. 실제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은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30. 영어 수업개선을 위한 문화지도와 관련된 연수의 기회가 충분하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31. 간접적인 영미 문화 체험 공간 및 이용의 기회가 충분하다. (영어마을 등)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부록 2) 학생용 설문지

본 설문지는 영어 수업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학습하는 것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학생들의 성의 있는 답변은 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의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위 연구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설문 참여에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과 동 근

▲ 다음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영어권 국가 해외여행 경험 : ① 있다 ② 없다

4. 해외 어학연수 혹은 유학 경험 : ① 있다 ② 없다

■ 아래의 질문을 잘 읽으신 후, 알맞은 항목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 세계 각국의 문화는 우열이 아닌 다양성을 가진 존재로서 모두 가치가 있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3. 세계 각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4. 올바른 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5. 국제화시대에서는 영어교육 못지않게 올바른 문화 인식 및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6. 영어권 문화학습이 영어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7. 나는 영어 수업에서의 문화 내용 이해를 통하여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8. 나는 실제 영어 수업에서의 문화와 문화 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9. 나는 주로 교과서에 나온 내용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통하여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0. 나는 주로 교과서에 나온 내용에 대한 교사의 경험을 들으며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1. 나는 주로 실제적인 사진, 그림 및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2. 나는 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 (Google, Youtube 등)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3. 나는 주로 노래, 게임 및 퀴즈 활동을 통하여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4. 나는 주로 시, 소설 등과 같은 문학을 통하여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5. 나는 주로 개별 혹은 그룹 과제 및 발표를 통하여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6. 나는 현재 영어 수업에서 문화 내용 이해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접했으면 좋겠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7. 나는 주로 영어권 문화의 역사, 문학, 예술, 지리, 제도, 유명인사 등과 관련된 문화 내용을 학습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8. 나는 주로 영어권 문화의 관습, 생활양식,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 사고방식 등의 내용을 학습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9. 현행 영어 교과서에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0. 현행 영어 교과서에는 문화에 대한 주제가 도전적이고 흥미롭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1. 현행 영어 교과서에는 문화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2. 나는 현행 영어 교과서에는 현 시대에 맞는 문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3. 나는 현행 영어 교과서에 나온 문화 내용의 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4. 나는 현행 영어 교과서에 나온 문화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영어권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5. 학교 영어 수업에서 영어권 문화 학습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부록 3) 교사 인터뷰 질문

번호	문항
1	영어 수업 시간에 문화 내용을 지도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3	문화 교육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 매체 혹은 수업 모형은 무엇입니까?
4	학교 현장에서의 영어 수업 시간에 문화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 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부록 4) 학생 인터뷰 질문

	문항
1	영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문화 내용은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영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문화 내용은 흥미와 동기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영어 수업 시간의 문화 교육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영어 수업 시간의 문화 교육에서 나타나는 교육 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영어 수업 시간에 문화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교사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